

예쁘고 '광주현대미술초대전' 14일까지 문화갤러리

추상미술의 과거와 현재

광주 추상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故 강궁운 작 '무제'

사단법인 예쁘꼬(이사장 김종일)가 특별기획한 '광주현대미술초대전'이 14일까지 광주 문화갤러리에서 열린다.

지난 1964년 출범한 예쁘꼬는 구상회화가 압도하고 있는 광주 화단에서 추상미술의 씨를 뿌리고, 역동적으로 작품 활동을 벌여온 추상미술의 산실이다.

'통행(通行)-공간을 지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 전시는 왕성하게 현대미술 활동을 펼친 작고·원로·중견 작가들의 발자취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같은 시기 전북, 부산, 제주 등 대도시의 현대미술을 살펴봄으로써 당대의 현대미술 흐름도 짚어본다.

이 전시에서는 외롭게 추상 미술의 길을 걸었던 고 강궁운, 양수아, 최종섭, 김영길 화백의 열정을 엿보게 하는 작품들이 선보인다.

또 곳곳하게 현대미술을 고집해온 김종일, 우제길, 최재창, 김영길 등 중견 작가들의 예술적 신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최재창, 김영길, 강선보, 김중근, 황계용, 박봉화, 장지환, 황영성, 신경호, 김한창, 유승우, 김인경, 백광익, 조주호, 이정룡, 김대걸, 채종기씨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지난 2004년 사단법인화단 예쁘꼬회는 현재 회화·조각·설치 분야에 걸쳐 100여명의 작가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제현대미술전을 비롯 정기회전전, 미술전문지 및 학술지 발행, 연구·평론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화갤러리(동구 서석동·062-233-6969)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문화·예술계 거목 차범석 선생 별세

생애와 작품 세계

'빛 없는' 예술 인생 천상 무대로 '귀향'

우리시대 최고의 희곡작가로 꼽히는 문화예술계의 거목 차범석 선생이 지난 6일 오후 경기 일산 백병원에서 지병으로 타계했다. 향년 82세.

1924년 목포에서 부유한 포목상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그는 13세 때 목포 광화극장에서 처음 본 최석희의 무용공원에 감동을 받은 후 광주고교 시절부터 연극과 영화에 심취하며 극작가로서의 소양을 다져왔다. 이후 1945년 연희전문 영문과에 들어가 평생의 스승인 동량 유지

진을 만나 연극인의 길에 들어섰고 한국 사실주의 연극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연출가로서 자리매김해왔다.

6·25로 인해 목포로 내려가 교사생활을 하던 그는 195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후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성난 기계'(1957) '열대어'(1965) '꿈하늘'(1987) 등 사실주의에 바탕을 둔 작품을 발표해온 그는 연극은 물론, 여성극극, 약극, 무용극 등 다양한 장르의 대본을 썼으며 1980년에는 '박수칠 때 떠나라'를 시작으로 '전원일기'를 1년간 집필하기도 했다.

'한국 사실주의 희곡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산불'은 1962년 초연 후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끊임없이 무대에 오르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산불'은 세계적인 극작가 아리엘 도르프만이 각색한 뮤지컬 '댄싱 새도우'로 제작돼 오는 2007년 공개될 예정이다.

간간한 성격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대쪽같은 원칙주의자로 통하는 그는 후

배 연극인들에게도 애정어린 독설과 불호령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 1987년 서울예술단 초대단장에 임명됐지만 창단 시연회에서 관련 장관이 잠을 잔 것을 알고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질 정도로 예술성을 강조한 사람이기도 했다.

'빛 없는 인생'을 좌우명으로 삼았던 그는 지금까지 자가용·신용카드·휴대

폰이 없는 '3무(3無 인생)'를 살아왔다. 또 공적인 자리에서는 엄격한 그였지만 사석에서는 노래도 잘 부르고 술이 좀

도 잘 출 정도로 예술가 기질이 많았다. 그는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을 비롯,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동아연극상 특별상, 이태랑 연극상, 금호예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희곡

60여편과 수필집 '목포행 안행열차의 추억', 평론집 '동시대의 연극인식' 등을 펴냈다.

'산불' 뮤지컬 작업을 진행중인 신시뮤지컬 컴퍼니 박명성 대표는 "20여년 모셔온 선생님은 항상 정도를 지키고 분수껏 살아라는 말을 하셨다"며 "댄싱 새도우" 오픈 공연을 꼭 보고 싶다고 하

셨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창일 목포시립극단 상임연출자는 "차 선생님은 한마디로 깔끔한 자기 고집으로 평생을 살다간 분이였다"며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상업성에 물들

지 않고, 실험극이나 서사극에도 눈물리지 않고 오직 '사실주의 연극'만을 고집스레 지켜온 어른이었다"고 회고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삼학도의 鶴'으로 영면하소서

-故 차범석 선생님의 영전에

한 옥근 <희곡작가>

백수(白壽)를 장담하시더니! 82세 한창 때, 사랑하시던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렇게 빨리도 가신다. 1년여 전까지도 노래하고 춤추시던 젊은이의 정열은 어디에 버리고 떠나십니까.

목포의 사랑이요. 전라도의 자랑이요. 대한민국의 얼굴이셨던 선생님! 노벨문학상을 받으신 다음에 떠나셔도 늦지 않을 길을 서둘러 가시다니 애통합니다.

선생님은 향시 삶은 흐르는 강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산강 강물 따라 삼학도의 학이 되어 날아가신 것입니까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이 생명 다하도록 추하지 않게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았고, 하고 싶은 일과 가고 싶은 길을 지칠 줄 모르고 살아왔으니 그저 고맙고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체중보다 무거운 책임의 짐부채를 느끼시며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마지막 소원이시던 통일연극, 남북합작 연극마당을 누구에게 맡기고 가시는 것입니

까.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대로 가시면 어찌합니까.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모든 연극인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흠모하고 존경했던 희망이요, 등불이셨습니다. 희곡작가로서, 연극연출가로서, 연극학자로서, 문화예술 행정가로서 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술의 본질과 원칙을 지키시며, 대한민국의 문화와 연극발전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끌어 애써주신 큰 어른이었습니다.

1956년 조선일보 당선작품인 '귀향'으로부터 2004년 '육단어'까지 200여 편의 작품을 남겨 주셨습니다. 후배들이 이어서 선생님이 생전에 못다 이룬 휴머니티의 꿈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편히 잠드소서!

당신을 사랑했던 목포의 품속에 안기신 선생님은 학이 되었습니다. 삼학도에 이어 새로운 전설의 학으로 영면하옵소서!

제자 한옥근 선생님의 영전에 이 글을 바칩니다.

2006년 6월 7일

정부 금관문화훈장 추서

목포에도 분향소 설치

정부는 고 차범석 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에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김명근 문화관광부 장관은 8일 삼성의료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 조문한 뒤 유족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영결식은 10일 오전 9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문화예술장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장지는 목포 선영이다.

이를 위해 임영운 극단 산울림 대표가 장례위원장, 손진책 극단 미추 대표가 집행위원장을 맡았으며, 배우 손숙 씨가 조사낭독, 배우 정동환 씨가 고인 약력 보고, 명장 안숙선 씨가 조창을 한다.

한편, 목포시는 문화예술회관 1층로비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자연의 신선한 공기와 향기
웅장하고 섬세한 조형물!

생활 속 웰빙문화실현!
전문가가
시공하는 **실내정원**

정원구성용품 **바위, 울타리, 물레방아, 분수, 개울, 안개분수, LED조명**

클딩과 조각 TEL062)511-8280 (광주시 중흥동 구시청·데이콤 사거리)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직접배송)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
☎(061)383-8283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업체/ISO9001 인증업체
www.damyang.co.kr

- 알뜰상
- 오뜸상
- 소가족상
- 대가족상

A*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자산컨설팅의 향기 분야에 전문의 자산관리·자산유치
광주 전남권토지구합
Tel : 062)973-9174, 016-757-8800

침단·수완·신창
상업용지 택지 상가건물 중개전문

급매 땅 침단최고오지 3번도로점 560여평

침단지구 상업용지 240평 270평 510평 567평 1100평 3000평 100평 111평 115평 160평 200평 253평 7기	주유소 1300평 15억 6000평16억 6500평35억 3500평 12억 3000평9억 기다
수완택지개발지구 이주지역, 혐의안도인백지 생활대학음지	광주지역 녹지 사업부지 주유소부지 890평 900평 7기 골프연습장부지 4300평 1만3천평 골프-공장부지 2800평 2600평 4900평 수원동 4차선 점 1200평 1800평 삼거리 2차선점 2500평
신창택지 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생 122평, 80평	전원주택 (주택부지) 도로-경관 최고 임대용 3억 봉산 4억 담양수북 2000평 1900평
우량임야 (연수원 복지시설 골포장 축사 등) 담양 26만평 정성 9만평 보성4만9천평 영암 18만평 순창40만평 7기	공장 장성 3000평 하남공단 9800평
골프연습장, 물류유통센터 약8000평 4000평 5000평 1만평 22만평	침단지구 A급 상가 임대 45평 50평 기다

☎ 장성·담양권 물건구함 ☎

● 광주·전남권 토지 건물 ●
- 매도 매수 교환 보유분식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1-625-1362

아주 특별한 제안

독점상권의 상업지역
■ 지하1층~지상6층, 연건평-2,500평
■ 특별분양·임대 상담환영

종합병원
▶ 엘리베이터 2대
▶ 주차장(150대) 완비
▶ 건물 준공 검사필
▶ 분할도 가능함

사우나(점질방)
▶ 주차장 완비
▶ 제반시설 및 지하수 풍부
▶ 장성군민의 절대우치, 희망업종

건축주, 시공사, 시행사
주식회사 삼호주택이 직접 분양·임대분양

장성 삼호센트럴타워
● 분양/임대 상담문의: 061)393-5550
● 특별 상담(본부장): 011-624-1115

국민지도
http://www.hanmap.co.kr 국민지리정보(주)

◆최신정보수록, 3월 도시계획고시안 확정
◆2006 광주광역시 지적, 임야 약도 판매중
◆광주광역시 책자 5천분의 1 150,000원 판매중
100,000원 판매중
◆광주광역시 책자 포켓용 3만5천원

국민지리정보(주)대리점 모집
(광주지역 2곳)
현재 시판중인 지번도책 목록
광주광역시, 나주시, 광양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장성군, 함평군,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 광주지사 : 062-385-0114
● 목포지사 : 061-284-7833
● 순천지사 : 061-744-0973

광주지사 위치: 삼촌동 무진로 버들마을앞

중앙국토개발건설
(현) 011-647-3500
(광주지법법원 뒷편)

상가, 점포
◆ 지상동 5층 상가, 대45평, 건 110평, 일건주거지역, 20m도 도로, 교통양호 1, 2, 3층 사무실, 4, 5층 주택, 매도 3억3천만원

원룸
◆ 계림동 송선관광호텔 앞 원룸, 대지63, 건물 층당 약40평, 지하1층, 지상4층(원룸11개, 부엌3개)

전원주택, 별장용지
◆ 전남 나주 풍림리, 자연녹지, 850평, 평당20만원, 조경가

산땅매매
◆ 광주 남구 안촌동 대촌중앙초교 건너(평간제 옆) 개발제한 지역, 자연녹지, 840평, 평당20만원, 조경가

중고용 임야
◆ 장성 북이면 원터리, 25,195평,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구역, 차량출입용이, 계곡이 흐르고 전망에 우수지, 정남향, 평당 12,000원
◆ 광주 동구 소래동, 13,093평, 자연녹지, 차량출입용이, 전기공급됨, 지내에 야수터 소재,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사잇음, 평당12,000원

모지용 임야
◆ 화순 아일곡리, 너릿재와 검문소 사이 우측 임야, 2500평, 평당 60,000원, 조경가

GS부동산컨설팅
T. 572-7744, 9966
(현)011-607-9908
(영산동 그린자이 건설현장 옆)

상가임대

1층: 약국,금은방,안경점
2층: 내과,소아과,아미안후과
3층: 안과,치과
4층: 학원,기타

지하층: 105평,노래방,PC방

영산동, 신개발지 중앙거리 코너 APT 10000여세대 밀집지역 상권 최고

분양권매매

◎양산동 GS 그린자이
35평형 분양가 1억5800
3800 납부, 최상층 남향
중간라인 매매가 1억7천
42평형 분양가 2억500
1억2천 납부 16층 중간라인
맨앞동 전방최고
매매가 2억1천700만
49평형 분양가 2억4200
1억5천납부 17층 중간라인
남향 조망권 최고
매매가 2억6천
58평형 분양가 2억8천
2천800 납부, 풀옵션
10층 조망권 최고
매매가 2억8천8백

대지공인중개사
(현)011-625-3965

◆임야 11,000평, 담양 청평
● 농림지역, 원전원지, 전면 80m 포장도로전
매매가 평당 19,000원

◆중흥동 35m 대로변
준주거지역
● 대지 280평 건물 300평 전면 22m 대로변 매매가 10억 5천만원

◆신안동 상업지역
대지 102평
● 조립식건물 64평 현오락실 매 2억 5천만원(용 1억, 보 2500만원 150만 포함)

◆본촌동 4차선 대로점
900평
● 2층건물 있음, 생산녹지, 매매가 12억

◆도천동 생산녹지
포장도로점
● 907평 대평당 78만원

◆화동 대지 120평
● 여관건물 150평 포함 대평당 330만원

◆금남로 공시지가 15억
● 매매가 8억 대지 140평